

제주도 장례의식요의 전승 실태와 사설 유형

변성구*

차례

1. 머리말
2. 장례의식요의 유형과 전승 실태
3. 장례의식요의 사설 유형과 의미
4. 결어

1. 머리말

의식요는 민간에서 행해지는 각종 의식과 관련하여 주술적 목적을 이루거나 의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불리는 민요를 말한다. 그런데 모든 의식 전반에 걸쳐 불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의식에서만 불리기에 노동요에 비해 전승되는 유형이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의식요는 사회변화에 따라 급격히 전승이 단절되고 있는 노동요와는 달리 일부마을이긴 하지만 아직도 생활현장에서 의식과 관련하여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에서는 의식요가 주술적인 힘을 지녀 인간과 귀신이나 영혼 사이의 의사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기에 의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르는 것을 꺼려한다. 특히 장례의식요는 집안이나 마을 안에서 부르는 것을 꺼려하며, 또한 부를 줄 아는 사람도 마을에서 흔치 않은 편이다.

*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런 연유로 의식요에 대한 자료의 조사, 연구가 노동요에 비해 현저히 미약한 것도 사실이다.

민요로서의 의식요는 의식의 성격에 따라 크게 세시풍속과 관련된 의식에서 불리는 세시의식요와 통과례의 하나인 장례의식에서 불리는 장례의식요로 분류된다. 물론 의식요 중에는 무가나 불가에서 파생된 것들이 있다. 무가인 성주풀이가 민요화한 <성주소리>나 불가인 <회심곡>이 민요인 <행상소리>에 삽입되어 불리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불교나 무속 신앙, 속신의식과 관련된 노래를 별도로 신앙의식요로 분류¹⁾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뚜렷이 신앙의식요로 구분해서 살필 만한 노래 자료가 없기에 별도의 항목을 두어 다루지 않는다. 또한 의식요는 기능에 따라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기원의식요, 귀신을 쫓거나 액막이를 하는 벽사의식요, 결혼이나 장례의식과 관련된 통과례의식요로 분류하기도 한다.²⁾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된 제주도 의식요 자료는 장례의식과 관련된 의식요에 집중되어 있다. 세시의식요는 입춘 절기를 맞아 정월달에 마을별로 행하는 부락제에서 걸궁놀이를 하면서 불렀다는 <걸궁노래>³⁾가 진성기의 『남국의 민요』에 한 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노래는 걸궁패가 마을의 거리를 돌면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집집마다 마당에 입장하여 액막이와 동시에 안택(安宅)과 풍년을 기원하면서 불린다. 이런 점에서 이 노래는 <지신밟는소리>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의식의 내용상 <성주소리>와 사설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그 외에 세시의식과 관련된 의식요는 수집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장례의식요를 중심으로 제주도에 전승되는 의식요의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된 민요를 바탕으로 사설 유형을 고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어떤 유형의 의식요가 전승되고 있으며, 어떤 유형의 사설이 전승의 핵을 이루고 있는지, 의식요별

1) 박경수, 『한국민요의 유형과 성격』(국학자료원, 1998), p.166.

2) 강동학, 「민요」, 『한국구비문학개론』(민속원, 1995), pp.195~196.

3) 진성기, 『남국의 민요』(제주민속연구소, 1958), p. 170. 이 노래의 “이집 짓영 삼년 만의 아들랑 낳건 소제로 낳고 딸랑 낳건 열여로 낳라 쇠랑 낳건 황쇠로 낳곡 몰랑 낳건 청총매 낳라”와 같은 사설은 <성주풀이>와 유사하다.

사설 유형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본고에서 주로 활용된 자료는 다음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들이다. ()안은 약호로 인용시 활용한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9-1, 9-2, 9-3), 1980, 1982, 1983.(대계)
-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1992.(대전)
- 제주도, 『제주도장례의식요』, 2005.(제주⁴⁾)

2. 장례의식요의 유형과 전승 실태

장례의식요는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불러지는 민요를 일컫는 말이다. 사람의 죽음이란 탄생과 더불어 중요한 통과의례의 하나이다. 개인에게는 인생의 종말을 의미하며 동시에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영원한 이별이기에 죽음이란 너무나도 슬픈 일이다. 산 사람들이 망자(亡者)를 저승으로 보내는 장례의식은 이와 같은 슬픔 속에 진행되지만 노래를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일구어 나가는 지혜를 터득하게 된다.

장례의식과 관련하여 불러지는 의식요는 장례절차에 따라 여러 유형이 전승되고 있다. 상두꾼들이 상여를 장지까지 운상하는 과정에 불러지는 <행상소리>(상여소리라고도 함), 장례식 전날 꽃상여를 만들고 이어 빈상여를 메고 놀리면서 부르는 <꽃염불소리>, 봉분을 쌓을 흙(진토)를 파면서 부르는 <진토긋소리>, 장지에서 봉분에 흙을 쌓은 후 달긋대로 봉분을 다지면서 부르는 <달구소리> 등이 대표적인 장례의식요들이다.

일반적으로 장례의식요는 장례의식의 절차와 관련된 내용과 죽음과 이별

4) 『제주도장례의식요』는 제주도청의 용역에 의해 좌혜경, 양영자, 변성구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제주도 전역의 장례의식요에 대한 조사보고서로 제주 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4개 지역의 총 16개 마을의 장례의식요가 조사되어 정리되어 있고, 부록으로 장례의식요의 악보가 첨부되어 있다.

에서 일어나는 인생무상의 개인적 정서를 주로 노래한다. 마을 주민이 상을 당하면 집군 혹은 골군, 유대군이라고 부르는 마을사람들이 서로가 부조를 하여 장례를 치르게 된다. 이때 불려지는 장례의식요는 죽음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한번쯤은 해볼 기회를 주며, 인생의 교훈과 삶의 경계(警戒)도 귀 기울이게 한다.

제주 지역의 장례의식요는 음악적, 사실적인 면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간직하면서 지역마다 약간씩 변이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후렴형식도 조금씩 달리 불려지고 있다. 현재 구좌읍 종달리, 우도면, 표선면 성읍리, 제주시 이호동, 회천동, 한림읍 월림리 등 마을에서 장례의식과 관련된 노래가 일부 전승되고 있다. 장례 절차에 따라 불려지는 노래 유형과 전승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꽃염불소리

<꽃염불소리>(〈꽃염불〉, 〈염불소리〉라고도 함)는 우선 행상을 하면서 불려진다는 점에서 <행상소리>에 속하지만, 전승지역 사람들은 제주도 전역에서 불려지는 <행상소리>와는 다르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훌륭한 인물이 돌아가거나 젊어서 죽은 영혼의 한을 달래기 위해서 장사 나가기 전날 꽃상여를 메고서는 온 마을을 돌면서 빈상여를 놀리면서 부르는 유희적 기능(조천읍 선홀리, 제주시 건입동), 빠른 가락으로 인해 <행상소리>를 하다가 높은 언덕을 만나 힘이 들 때 상두꾼들에게 흥을 돋우거나(제주시 이호동, 표선면 성읍리), 운구를 하다가 쉴 때 <꽃염불>을 부르면서 흥겹게 놀기 위한 기능(제주시 건입동, 북제주 북촌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유로 이 노래를 <장례 놀이하는소리>라고도 할 수 있다. 장례놀이는 전남의 해안지방에서도 전승되고 있는데, 전남 진도에서는 이를 '다시래기'라고 한다. 전남 신안에서는 <밤달애노래>, 진도에서는 <개타령>⁵⁾이란 노래명으로 전승되고 있다.

5) 강동학, 앞의 책, p.198.

아해 허어이 허야 얼릴릴거리고 염불이라
 간다간다 나는간다 북망산천으로 나는간다
 아해 허어이 허야 얼릴릴거리고 염불이라(후렴, 이하 생략)
 술집에 갈때는 친구도많고 공동묘지로 갈때는 나혼자간다
 어제칭춘 오늘백발 청춘늙은 백발이여
 고사리 태역단풍은 좋은들로 어서가자 어서가자
 먹던밥에 술꽃아놓고 부모야동생 이별하던
 가세가세 어서가세 북망산천으로 어서가세
 저승길이 멀다해도 대문밖이 저승이여
 동박꽃도 꽃이라고 일년에 두번씩 피건마는
 우리나라인생 한번가면 또다시오기는 만무로다.

(제주:22, 선흘리 김옥자)

<꽃염불소리>의 전승은 과거 제주도 전역에 걸쳐 이루어졌으나⁶⁾ 현재 전승되는 지역으로는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를 시작으로, 조천읍 선흘리, 신촌리, 제주시 건입동, 이호동까지 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표선면 성읍리 지역에서는 행상 나가는 날, 마을 안에서 우선 아래와 같은 <늦은염불소리>를 부른다.

<늦은염불소리>
 어허어 허어어 허어어 오허어~익
 어허어 허어어 허어어 어허어~익
 어허어 허어어 허어어 오호어~익
 (이하 같은 노래 반복)

(제주:33, 성읍리, 송순원)

그리고 장례 행렬이 마을 밖에 이르렀을 때는 다른 마을과 달리 <행상소리> 대신 아래와 같은 <젓은염불소리>를 부른다.

6)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1992. p.37.

<жат은염불소리>

아항허어야 어허이요로 나형허어야 머리로다
 아행허어야 어허이요로 나형허어야 머리로다(후렴. 이하 생략)
 가세가세 어서가세 이산을 건너서 병로가세
 황천길이 멀다하데 대문밖에 황천이로다
 어머님전 몸을빌고 아버님전 뼈를빌어
 조상님전 피를빌고 이세상에 탄생하여
 오닐날로 정명인줄 어느누가 알앗던고
 공수레다 공수건데 빈손빈몸 나왔다가
 빈손빈몸 돌아갈때 사자항상 동행되어
 배고픈덴 밥을주고 목마른덴 물을주고
 신발이나 고쳐신고 장간이나도 쉬고나가세
 억울하게 통곡한들 어느사자가 들을소나
 간다드니 왜또왔나 울고나가실길을 왜또나왔나
 이팔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서 회롱을말어
 본데늬어 벽발이나 소년몸늬어서 벽발이됐네
 지쳐간다 다쳐간다 보리떡에 슈미쳐가네

(제주:33, 성읍리 송순원)

<행상소리>로 불려지는 <жат은염불소리>는 역시 <꽃염불>과 같은 형식의 노래인데, 성읍으로 전파되면서 <행상소리>로 불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성읍 지역이 가창유희요가 발달한 지역이라는 특성으로 가락이 구성되고 흥겨운 <꽃염불소리>가 <행상소리>로 대체된 결과라고 파악되며, 그 형식은 선창자의 선소리에 여러 상두꾼들이 받는 후렴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해 후렴에서 지역별로 다소의 변이가 있을 뿐 사실은 거의 고정적이다.

○<꽃염불소리>의 후렴

아해 허어이 허야 얼렐렐거리고 염불이라(조천읍 선흘리)(제주:20-21)

야혜~어허이 어허야 얼릴덜거려서 염불이로다(조천읍 신촌리)(대전:36-37)
 아행허어야 어허이요로 나형허어야 머리로다(표선면 성읍리)(제주:32-33)
 아행이이여 예헤이이여 어흥거려 보리로다(구비9-3:563-567),
 어형 어허야 어허영 어허야 얼릴거리고 방아로다(제주시 이호동)(제
 주:78-79)
 아혜영 허어잉 어허잉 어허야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제주시 건입동)
 (제주:83-84)

<꽃염불소리>라는 노래명은 후렴의 “염불이라”에서 붙여진 것이다. 원래 <염불소리>는 황해도 대표적인 민요인데, 느린 것은 <산염불>, 빠른 것은 <자진염불>이라 한다. 이 노래는 본디 서도 시왕굿에서 망자를 천도하는 염불소리가 민요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후렴은 “에헤헤이 에헤 어미 나무 염불이라” 또는 “에헤헤이 어으 어허야 건너거리고 염불이라”⁷⁾라고 한다. 제주도의 <꽃염불소리>의 후렴을 보면 지역에 따라 ‘염불이라’ 대신에 “머리로다, 보리로다, 방아로다, 나무아미타불” 등 여러 가지로 변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역시 유사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꽃염불소리>는 서도 민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건입동의 경우 가창자인 김태매(여,82)는 건입동 행상에서 꽃상여에 여러 번 올라 이 노래를 불렀으며, 국청사에서 행한 49재에 참가하였다가 자신도 모르게 일어서서 <꽃염불소리>를 불렀던 감동 때문에 “얼릴덜거려서 염불이라” 대신에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을 넣어서 부른다고 했다. 이와 같이 가창자의 생활 경험은 노래의 변이에 작용하는 하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7) 임석재 채록, 『한국구연민요자료집』(민속원, 2004), p.751, 765. 황해도 은율군 서부면에서 불린 <산염불>은 아래와 같이 “눔시다눔시다 젊어서노세 늙고병들면 난못노리라 /야혜 아아아 아혜 아에헤야 산염불이라.”와 같이 불려지는데, 후렴에 ‘염불이라’란 말이 규칙적으로 나오고 있다.

2) 행상소리

<행상소리>는 장례식 당일날 상여를 장지로 운반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흔히 <상여소리>라고도 일컬어진다. 이 노래는 1990년경까지는 제주도 전역의 마을에서 전승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운상의 절차를 보면 동관 할 때 “금천구취어감고”란 동관축을 고하고, 방에서 창문을 통해 관을 상여로 옮긴다. 이때 작은 향아리나 망데기 등을 깨거나 팔을 뿌리기도 한다. 관이 상여에 안치되면 “영이기가 왕즉유택 재진결례 영결총천”하는 발인축을 고하면 상두꾼들이 ‘자’하는 외침과 함께 상여를 들어올린다. 출발하기에 앞서 상가에서는 상두꾼들에게 술과 안주를 대접한다. 선소리꾼이 혼령을 부르는 “어허어 허어어 허어어 오허어~익”하는 <영귀소리>를 세 번하면 곧바로 출발하게 된다. <영귀소리>는 장지로 출발하기에 앞서 망자의 황천길이 편안하기를 축원하며 망자의 혼령을 보내고, 또 망자가 집을 떠남에 하직인사를 하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⁸⁾라고 한다. <행상소리>는 대부분 마을 안에서는 부르지 않고, 마을 밖에 나가서야 불린다. 그런데, 표선면 성읍리에서는 길거리 안에서 특별한 사설이 없이 반복되는 <영귀소리>를 늦은 가락으로 계속하여 노래하는데, 이를 <늦은염불소리>라고 하며, 마을 밖에 도달하면 빠른 가락으로 <행상소리>에서 불리는 사설을 선소리로 부르고, <꽃염불소리>의 후렴을 받아부르는데, 이것이 마을에서는 <жат은염불소리>라고 한다. 또한 성산읍 삼달2리에서는 장지까지 별다른 사설 없이 “어허어 허어 허어어이 이히이~익”과 같은 노래를 계속해서 부른다. 이것이 이 마을의 <행상소리>인 셈이다. 다시 말해 선소리와 훗소리의 구분없이 같은 소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 그 외 마을에서는 <행상소리>가 보편적으로 불린다.

<행상소리①>

에헤야 에헤노야

8) 강동학, 앞의 책, p.198.

어허야 어허어야
인간지중 만사중에
어허야 어허어야
이별이별이 웬말인가
어허야 어허어야 -(대전: 293-294)

<행상소리②>

어허이녕창 어화로다 인저가면 언제오나
어허녕창 어화로다
서른두명 역꾼덜아 나갈길을 잘모셔가소
어허녕창 어화로다
부모형제 이별하고 친척간에 이별했네
어허녕창 어화로다(제주: 83, 이호동 김달봉)

<행상소리③>

어~허 어~허 어가리능창 어~허
어~널 어~널 어가리능창 어~널
가자가자 어서가자 공동묘지로 어서가자
어~널 어~널 어가리능창 어~널
저승질이 멀다해도 창문앞이가 저승이여
어~널 어~널 어가리능창 어~널 (대전: 171-172)

<행상소리>의 가창방식은 선소리꾼이 상여 앞이나 상여 위에 올라서 선소리를 메기면, 상두꾼들이 훗소리를 받는 선후창 형식이다. 사설과 후렴은 위에서 보듯 대개의 노래들이 2음보 내지는 4음보격의 단위로 구성되며, 하나의 노래에 혼합되어 불리기도 한다. 사설 면에서 고정적인 사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음악적으로도 일반적으로 널리 불려지는 고유 형식(구좌읍 종달리, 한림읍 월림리, 제주시 봉개동 등)과 변이 형식(서귀포시 예래동, 하효동), 그리고 특이 형식(표선면 성읍리)도 나타난다. 변이형식은 예래동의 경우 가창자가 노래를 좋아해서 경기민요를 배우거나 서귀포

국악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거나, 하효동의 경우 여성가창자로서 민요가수로 활동하면서 창민요를 주로 불렀던 경험의 반영 결과로 파악된다. 특이 형식은 독특한 창민요가 많이 전승되는 성읍이라는 문화적 배경에서 생겨난 결과라고 본다.

특히 2005년 조사결과 현재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 조천읍 선흘리, 표선면 성읍리, 제주시 회천, 도두, 이호동 등의 마을에서 <행상소리>가 전승되고 있는데, 장의사가 등장한 198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마을에서 행상의 식과 노래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거 상여를 운상하는데 있어서 장지가 원거리인 경우 상두꾼들이 지치면 중간에 2~3회 쉬면서 음식 대접을 하고 상두꾼을 교체했다고 한다. 이를 '길수용', '길소용', '질역', '질음역'이라고 하는데, 이때 대체로 제주도 동부지역의 성산읍 삼달2리, 서귀포시 토평동 등의 마을에서는 '하매'라는 말과 동시에 상여를 내려놓고 쉬지만, 서부 지역인 한림읍 월림리, 서귀포시 예래동, 안덕면 상천리 등에서는 선채로 상두꾼을 교체한다고 한다.

○<행상소리>의 후렴 유형

- 어허어야 어화로세(제주시 봉개동)
- 어화렁차 어화로다(제주시 도두동)
- 어허녕창 얼화로세(제주시 이호동)
- 어어녕창 어화로다(제주시 건입동)
- 어허농창 허허노세(구좌읍 종달리)
- 어허러어허라 어리고녕차 어허라(우도면 하우목동)
- 에헤롱 에헤롱 어거리녕차 에헤롱(우도면 하우목동)
- 어~영 어허야 열사로다(애월읍 귀일리)
- 어허야 얼화로다(조천읍 선흘리)
- 어화렁창 어화로세(한림읍 월림리)
- 어영어 어허어야(안덕면 상천리)
- 어가리님차 어허야(표선면 표선리)
- 어서가자 어허야 어허요(서귀포시 효돈동)
- 영허야 뒤야로고나(서귀포시 토평동)

어~널 어~널 어가리능창 어~널(표선면 성읍2리)

<행상소리>의 후렴은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중심으로 “어허능창 어화로다”계의 후렴이 주로 불려지고 있다. 여기서 ‘어허’는 탄식의 의성음이고, ‘능창’은 고개를 넘자는 뜻의 ‘넘자’에서 변이된 ‘넘차’류로 이에는 ‘능창’, ‘령창’, ‘룽창’ 등이 있다. 그런데 그 외 우도면의 경우 ‘어거리능창’, 표선면 표선리의 어가리넘차, 표선면 성읍2리는 어가리능창이 불려지고 있는데, 이들은 어찌 가겠는가라는 뜻으로 형성된 ‘어이가리’와 ‘넘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유형이다.

3) 진토굿소리

<진토굿소리>는 <진토굿파는소리>라고도 한다. 봉분에 쌓을 흙을 일정한 장소에서 파내고 퍼 담으면서 부르는 노래로 이에 대한 자료는 제주도에 서만 보고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본토의 노래는 흙을 퍼서 옮기는 <가래질소리>가 있다. 특별히 일정한 노래 형식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노래를 차용하여 불려지고 있다. 크게 ‘더림소리’ 계열과 ‘술기소리’ 계열, ‘흥애기’ 계열로 구분된다. 특히 구좌읍 종달리와 같은 경우는 ‘술기소리’ 계열에다 사설을 붙여 부르는 <진토굿소리>가 잘 발달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어허~ 어~ 술기로구나

어헤~어~ 술기로다(후렴. 이하 생략)

선소리는 허는책 허지마는 훗소리가 개판이로다

노자노자 젊아노자 우리역군님덜 잘도한다

무정세월아 가지마라 우리인생 다늬어간다

우리인생 한번나고 요길만은 가는길이로구나

술기로구나 술기로구나 역군님덜 잘도한다

(야, 요놈아 거 명석 재계 치왕 멧탱이 재계 정 글라.

잘도헌다 잘도헌다 요놈춤 기운깨나 새구나.)

에 어~허~야 솔기로우나

요놈덜 기운도세다 맹탱이를 하나씩지연 잘도간다

(제주:81, 이호동 김달봉)

이 노래는 ‘솔기소리’ 계열에 해당하며, 이런 계열의 노래는 제주시 봉개동, 구좌읍 종달리, 우도면 하우목동, 애월읍 귀일리, 조천읍 선흘리, 제주시 이호동 등에서 전승되고 있다.

어형허어 어허어 어허어기 더럼마야

아형허어 어허어 어허어기 더럼마야(후렴. 이하 생략)

황천길이 멀다하되 어허어 대문밖이 황천이여

요디산씨 삼년만의 어허어 아들나면 효잘나라

딸은나면 열녘나라 허어어 소는나면 황솔나라

개는나면 사농캐어 어허어 닭은나면 황겉나라

말은나면 천리마여 어허어 어허어 돛은나면 지름돛이라

도로갈라 제주도여 허어어 군은갈라 남제주군

면은갈라 표선면에 어허어 부락갈라 성읍리여

동네갈라 서하동에 어허어 올래들어 올래문째

마당들어 마당장째 어허어 집들러서 집가째여

좌청룡에 우백호를 어허어 거느리고 산답디다

(제주:34-35, 성읍리 송순원)

이 노래는 ‘더럼소리’ 계열의 노래로 후렴에 ‘더럼마야’란 구절이 규칙적으로 불려진다. 표선면 성읍리, 성산읍 삼달리에서 전승되고 있다. 그리고 <진토굿소리>를 가창력이 좋은 창자가 스스로 만들어서 후렴 없이 선소리만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안덕면 상천리 박정환, 서귀포시 토평동의 송명하). 그런데 ‘홍애기’ 계열은 서귀포시 예래동, 애월읍 남읍리, 대정읍 신평리 등에서 불려지고 있으며, ‘에야~홍’이나 또는 “어야홍 홍애기로우나”란 후렴이 붙는다.

○ <진토굿소리>의 후렴

- 어허차 솔기하자 아허어홀(제주시 봉개동)
- 아허어야 솔기로구나(제주시 이호동)
- 어허어 영허영 오호오영허어 솔기로갑시다 이(구좌읍 종달리)
- 어허 솔기로그자(우도면 하우목동)
- 어허 솔기로드(애월읍 귀일리)
- 영허어어하-오기 두럼마야(표선면 성읍리)
- 앵에에에 에에에에 두럼아(성산읍 삼달리)
- 서어어기야 에에에의요(표선면 표선리)
- 어야 흥(서귀포시 예래동)
- 이야 호(애월읍 남읍리)

<진토굿소리>의 후렴은 지역에 따라 유사하면서도 다양한 형태를 보여 주고 있는데, 노래의 유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있다.

제주도의 장례의식요를 보면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 필요한 장비가 기계화되면서 <진토굿소리>가 가장 먼저 사라지고 있으며, 2004년 조사 당시 제주시 건입동과 도두동, 한림읍 월림리에는 과거에는 불려졌으나 현재 전승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달구소리

<달구소리>는 주로 봉분을 쌓은 후 흙을 다지면서 부르는, 즉 달구를 짚 으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서귀포시 토평동과 같은 곳에서는 석곽에 회를 넣고 다지는 본토의 회다지기과 같은 작업이 과거에는 있었다고 한다. 봉분을 만들면서 주로 세 번 정도 묘의 흙 다지기를 한다. 달굿대 혹은 상여의 '뭇 캣냥'을 이용해서 다지는데, 선소리꾼이 봉분의 한가운데 서서 소리를 메기면 달굿대를 든 상두꾼들이 후렴을 받는다.

<달구소리①>

에헤~ 달구

에헤~ 달구
 천년만년 청기와집을 우리손으로 만들어보세
 에헤~ 달구
 쫓아들명 다져보소 얼씨구절씨구 지화자로다
 에헤~ 달구
 술집에는 갈적에는 친구들도 많지마는
 에헤~ 달구
 공동묘지 가는길엔 나혼자가 웬말이나
 에헤~ 달구
 쫓아들명 다려보자 얼씨구절씨구 지화자로다
 에헤~ 달구
 오늘하루 일기가좋아서 산을만드는데 참으로좋네
 에헤~ 달구

(제주:81-82, 이호동 김달봉)

<달구소리②>

어허어 팽토
 어허어 팽토
 노피들렁 느지노라
 어허어 팽토
 노핀디랑 췌게지고
 어허어 팽토
 느진디랑 살살지라
 어허어 팽토

(제주:62, 토평동 송명하)

<달구소리>는 장지에서 정해진 광중에 하관을 한 다음 흙을 메우고, 또 봉분을 쌓는 과정에 봉분의 흙을 다지면서 부르는 노래다. 역시 선소리꾼이 봉분 가운데 올라서서 선소리를 메기면 상두꾼들은 들은 대로 후렴을 받아부르는 선후창 방식으로 가창된다. 후렴을 보면 “어허 달구” 유형이 기본인데, 이의 변이형으로 “어허 멀구” 또는 “어허 멀호”, “어허 팽

토”가 있다. 북제주군 한림읍 월림리, 남제주군 안덕면 상천리, 성산읍 삼달리, 서귀포시 토평동, 예래동은 달긋대를 이용하여 달구지는 것을 보통 ‘팽토 다진다’라고 한다. 특히 서귀포시 예래동, 토평동은 달구는 집을 지을 때 집터를 다지는 것으로 인식하여 <달구소리>를 <팽토소리>라 한다. 다시 말해 <집터다지는 소리>(원달구소리, 양택달구소리)는 보통 <달구소리>이고, <봉분흙다지는소리>는 <팽토소리>라 하여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봉분 다지는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나 발로만 하는 지역은 북제주군 우도면과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등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특별한 <달구소리>가 불려지지 않고 있다.

○<달구소리>의 후렴

어허야 달구(제주시 봉개동) / 어허야 달구(제주시 도두동) / 예헤이 달구(제주시 이호동)

어허야 달구(제주시 건입동) / 어허야 달구(구좌읍 종달리) / 예헤 달구(애월읍 귀일리)

예헤 달구(애월읍 남읍리) / 예헤 달구(한림읍 월림리) / 예헤에 밀구(표선면 성읍리)

어허어 달구로다(안덕면 상천리) / 어허어 팽토(서귀포시 토평동) / 어허야 달구야(서귀포시 예래동)

<달구소리>의 후렴은 크게 ‘어허 달구’형과 ‘어허 팽토’형으로 나뉜다. 한림읍 월림리, 안덕면 상천리 등에서 이 노래를 <팽토소리>라고 일컫기는 하지만 후렴에서까지 ‘어허 팽토’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서귀포시 토평동의 경우만 ‘어허어 팽토’라는 후렴으로 <달구소리>가 전승되고 있다.

<표1> 제주도 지역별 장례의식요의 유형9)

지역	마을	전승 유형	비고
북 제 주 군	구좌읍 종달리	행상소리, 진토굿소리, 달 구소리	현재도 장례의식요를 부름. 달구소리 미약함.
	우도 하우목동 오봉리	행상소리, 진토굿소리	현재도 전승됨. * 달구를 하지 않으며, 노래도 없음.
	애월읍 귀일리	행상소리, 달구소리	1960년 경에 달구소리 사라짐, 1990년 경에 행상소리가 사라짐, 상여 태우기 놀이 없음.
	조천읍 선흘리	꽃염불소리, 행상소리, 달 구소리	꽃염불소리를 부르며 전날 꽃상여 놀림. 꽃놀림을 1960년대 후반까지 함
	한림읍 월림리	행상소리, 달구소리	진토굿소리 전승 안 됨, 2년 전까지 행 상소리 함. 상여 태우기 놀이 없음.
남 제 주 군	표선면 성읍리	늦은염불, 행상(꽃염불소 리), 달구, 진토굿소리	지금도 성읍리 중 7반은 행상소리를 함. 마을안: 늦은염불소리, 마을밖: 행상소리로 꽃염불을 부름. 돌아올 때 상여 태우기 함.
	안덕면 상천리	행상소리, 진토굿소리, 달 구(평토)소리	행상시 상여를 절대 내려놓지 않음. 선 후창의 방식이 아니라 독창으로 부름
	표선면 삼달리	행상소리, 진토굿소리, 달 구소리	영귀소리모만 행상소리를 부름. 달구소 리 발달, 진토굿소리는 해에 두렵마
	표선면 표선리	행상소리, 진토굿소리	달구소리가 전승되지 않음.
서 귀 포 시	하효동	행상소리, 달구(평토)소리	상여 태우기 함.
	도평동	행상소리, 달구(평토)소리	최다지기를 했음, 달구는 곡위를 쟁을 때, 상여태우기 놀이함.
	예래동	행상, 꽃상여소리, 달구 (평토)소리, 진토굿소리	노래가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음, 상여 행 차시 내려놓지 않음, 1980년대까지 부름.
제 주 시	봉개동	행상소리, 진토굿소리(솔 기소리), 달구소리	10년전까지 행상소리 했음.
	도두동	행상소리, 달구소리	진토굿소리는 있었으나 전승되지 않음. 현재도 행상을 함.
	이호동	행상소리, 꽃염불소리, 진 토굿소리, 달구소리	꽃염불소리는 행상소리 중간에 불림. 현재도 행상함.
	건입동	행상소리, 꽃염불소리, 달 구소리	진토굿소리는 전승되지 않음. 꽃염불소 리를 부르며 꽃상여를 놀림.

9) 이 자료는 『제주의 장례의식요』란 보고서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3. 장례의식요의 사실 유형과 의미

장례의식요의 사실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전승의 원리를 파악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여기서는 개체요마다 공통적으로 가창되는 사실 유형을 몇 가지로 설정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체요마다 공통적으로 불려지는 사실은 그만큼 지역을 초월하여 고정화된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가창자에 의해 변이되거나 다른 사실과 혼용되면서 불려지고 있다. 다시 말해 가창의 근본문서인 셈이다. 유형의 설정은 개체요의 여러 의미 단락을 분석하고 완결된 것을 대상으로 하되, 단락의 첫구절이나 중심어를 사용하여 유형의 명칭으로 사용한다. <꽃염불소리>와 <행상소리>는 가락은 다르나 기능이 같은 노래이기에 사실 유형 역시 공통적이다. 여기서는 함께 살펴본다.

1) <꽃염불소리>와 <행상소리>의 사실 유형

○ 북망산천 형

간다간다 나는간다 북망산천으로 나는간다

술집에갈때는 친구도많고 공동묘지로갈때는 나혼자간다(제주:21, 선홍리 김옥자)

간다간다 나는간다 인제가면은 언제오나

인생일장은 춘몽인데 한번가면 못오는길

북망산천 어디메냐 인생마지막길 북망산천이다.(제주:17, 우도면 오봉리 강철석)

북망산천은 곧 죽은이가 가는 공동묘지를 환유한다. 술집과 공동묘지의 대조를 통해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망자의 원혼을 달래고 있다. 화자는 노래를 하는 창자이지만 동시에 망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망자의 원혼을 달래기위해 공동묘지는 “고사리 테역단풍 좋은디”로 묘사된다. 생자와 사자의 이별, 곧 죽음은 한순간에 닥치는 일이기에 예고되지 않는다.

“떡뭇밥에 술꽃아놓고 부모야동생 이별하듯”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저승길 형

저승길이 멀다해도 대문밖이 저승이여
동백꽃도 꽃이라고 일년에두번씩 피건마는
우리나인생 한번가면 또다시오기는 만무로다.(제주:22, 선홀리 김옥자)

저승길 형의 사설은 저승에 대한 민간의 세계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저승길이 한없이 먼 길이며, 나에게서는 영영 다치지 않을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이 길을 피해갈 수는 없다. 결국 어느 한순간 세상을 뜨는 사람을 보니 대문을 열고 다른 세상을 체험하듯이 저승은 그렇게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동백꽃은 떨어졌다가도 다시 피지마는 인생은 한번 저승으로 가고나면 다시 올 수 없다는 생자필멸의 우주 원리를 설파하면서 인간생명의 불회귀를 인식시키고 있다.

○무정세월 형

무정세월이 여유하야 / 원수백발이 돌아나오면
없는망녕도 절로나난다 /
무정세월아 가지를말아 / 옥빈홍안도 다늙어지네.(제주:7, 종달리 김수길)

무정세월 형의 사설은 늙음을 한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내용은 주로 “이팔청춘 소년과 백발이 된 노인”의 대조를 통해 소년몸이 늙어서 백발이 되었다는 인생무상의 섭리를 노래하기도 한다.

○회심곡 형

천지지간 만물중에 / 사람밖에 또있는가
석가여래 공덕으로나 / 아버님전 뼈를 받고
어머님전 살을빌어 / 이내일생을 탄생하여서

한두살에 철을몰라 / 이삼십이 근당하여도
 부모님은공 다못갸구나 (제주:8, 종달리 김수길)

회심곡은 <행상소리>의 일부로 많이 불려지는 불교가요이다. <부모
 은중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석가여래공덕으로 부모의 몸을 빌려 이 세
 상에 태어나서 좋은 업을 많이 지으면 극락세계에 가고, 악업을 지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내용의 노래이다. 표선면 성읍리의 <행상소리>에
 서는 “어머님전 몸을빌고 아버님전 뼈를빌어 조상님전 피를빌고 이 세
 상에 탄생하여 오닐날로 정명인줄 어느누가 알았던고”와 같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고 있다. 회심곡형의 사설은 인간의 탄생에서부터 성장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회한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많이 불려
 지고 있다.

○천하명의 형

천하명의 편작이도 / 혼번냥고 혼번가는길
 십이제국 진시황도 / 혼번냥고 혼번가는 길이로구나
 천하일색 양귀비도 / 혼번냥고 혼번가는 길이로구나
 왕후장상도 요길은 / 면헝기 어려운길이니
 서러말고 돌아를가소 (제주:40, 상천리 박정환)

이 사설은 이 세상의 천하영웅이나 귀인들도 영원히 살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은 한번 탄생하면 곧 죽음에 이르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라는
 의식을 담고 있다. 서민인 망자에 대한 위로가 핵심내용이 되고 있다.

○병고한탄 형

어제오늘 성튼몸이 / 저녁나절 병이들어
 섬섬약질 가는몸이 / 태산같은 병이드니
 부르나니 어머니요 / 찾는것은 냉수로다 (제주:79-이호동 김달봉)

병고는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의 하나이다. 병고의 고통을 노래함으로써 망자의 원혼을 달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높고 가자형의 사설이 일부 있어, “저달이 지도록 높고나 갑시다”라고 노래하지만 망자를 위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듯하다.

○ 권계당부 형

인생은 일장춘몽인데 젊었을 때 착한 일하라
상주야 큰딸아 큰사위야 매누리야
이것이 바로 삶이로구나(제주:20, 우도면 오봉리 강철석)

인생이 일장춘몽임을 강조하면서 자식과 사위, 며느리 등 가족들에게 젊었을 때 착한 일을 하라는 권계가 눈물겹게 한다. 심지어는 짙막한 인생에 잘 배풀어야지 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까지 당부하기도 한다.

○ 하직인사형

이제가면 언제오나 한번가면 못을길을
우리벗님네 잘들있소 오늘보면 하직일세 (제주:28, 월림리 김성담)

부모동생 영이별하고 삼천벗님 하직하고
황천극락 웬말이나 (제주:25, 하귀리 고운일)

하직인사를 하는 사설 역시 개체요마다 변이되고 있지만 대체로 공통적인 사설이 노래되고 있다. 위 두 가지의 사설이 전승되고 있는데, 죽음에 이르러 하직인사를 하는 대상은 벗님네만이 아니라 부모동생, 삼천(삼촌) 벗님네들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2) 진토굿소리

제주도의 <진토굿소리>는 고유의 가락과 사설을 지닌 노래가 전승되

지 않고 있다. 작업 양상과 유사한 노래의 가락과 사설을 차용하여 진토
 굿 파는 작업에서 불러지고 있는데, 세 가지 유형의 노래가 차용되고 있
 다. 그 첫째는 술기소리류의 노래를 부른다. <술기소리>는 원래 <낭내리
 는소리>로 주로 불리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진토굿 파는 작업에서도 불
 리고 있는 것이다. 구좌읍 종달리, 우도면 하우목동, 제주시 봉개동, 이호
 동 등에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불리고 있다.

- ① 어어어~차 헤 어어 어~어~차 술기하자
 이야아어~ 흘-
 많이덜 오셔서 수고만 허십니다 헤 권력덜허여 주십서 히야
 이야아어~ 흘- (제주:74, 봉개동 고흥원)
- ② 요놈덜 기운도세다 멩텅이를 하나씩지연 잘도간다
 어허~어~야 술기로구나 (제주:80, 이호동 김달봉)

가창방식은 위 예요처럼 선소리꾼이 선창을 하면 작업을 하는 사람들
 이 후렴을 받는데, ①은 “이야아어~ 흘-”을, ②는 “어허~어~야 술기로
 구나”를 후렴으로 받는다. 다시 말해 선소리꾼이 하나의 의미 단락을 완
 성하여 부르면 일꾼들이 후렴을 규칙적으로 부르고 있다.

둘째는 더럼소리류의 소리가 진토굿소리로 불리고 있다. 더럼소리는 주
 로 어떤 작업도구를 힘껏 내리칠 때 내는 ‘더럼마’를 소리의 기본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소리는 권력형(勸力形) 소리라고도 할 수 있
 다. 더럼소리류의 소리는 <도끼질소리>, <흑병에부수는소리>, <따비질소
 리>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모두 도끼나 곱방매, 따비 등의 도구를 이
 용하는 노동요들이다. 더럼소리류의 <진토굿소리>는 성산 삼달2리, 표
 선면 성읍리, 가시리, 서귀포시 토평동, 안덕면 상천리 등지에서 불러지고
 있다.

- ① 황천길이 멀다하되 어허어 대문밖이가 황천이여

어헿어어 어허어 어허어기 더럼마야 (제주:34, 성읍리 홍순원)

② 헤엿 에헤에 에헤에 에헤에 두럼마

헤엿 에헤에 에헤에 에헤에 두럼마

헤엿 에헤에 에헤에 에헤에 두럼마

(이하 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해간다.) (제주:47, 삼달2리 강성태)

표선면 성읍리에서는 ①처럼 의미 있는 사설을 선창하면 일꾼들이 고정된 후렴을 받은 선후창의 방식이지만, ②는 선소리나 훗소리가 구별 없이 한 가지 유형의 후렴만을 부르는 선후창 방식으로 노래를 진행하고 있다. ②는 성산읍 삼달2리 마을에서만 전승되는 특이한 방식의 노래이다.

셋째는 흥애기류의 소리가 <진토굿소리>로 불리고 있다. 흥애기류의 소리는 후렴에 '흥애로다'라는 구절이 일정하게 불린다는 데서 명명된 노래로 주로 <꿀베는소리>나 <밭매는소리>에서 많이 불린다. 이 소리는 서귀포시 예래동, 애월읍 남읍리 등 일부지역에서 불리고 있다.

① 흐다말면 남이웃나 에헤 어허영어 어야 흥애로구나
에야~흥 (제주:65, 예래동 강승화)

② 잠간흐면은~ 향원님내덜 어서어서덜 믈치고 거들거렁 느려가봅시다
이야호~(대전:306, 남읍리 고헌명)

사설의 형태를 통해 <진토굿소리>의 사설 유형을 살펴보면 가락은 다르지만 내용상으로는 공통적인 사설이 전승되고 있다. 진토굿소리는 장례 의식이란 절차와 관련짓지 않는다면 일반 흙을 파서 운반하는 토목 및 운수노동요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장례의식과 관련된 내용의 사설보다는 노동관련 사설이 많이 불려지고 있다. 상주(喪主)의 입장에서 진토굿을 파는 작업을 독려하는 사설이 많다.

○작업독려 형

쌍따비랑 덤벼들습서
어허 어허어 따비질소리
자던아기 일어나듯
청테역에 황테역에
두터우면 붙이기어려우니
알팍알팍 일러나줍서(제주:44, 상천리 박정환)

따비로 봉분에 입힐 테역(떼, 잔디)를 파내는 작업을 독려하고 있다. “자던 아기”는 따비에 의해 떼가 일어나는 모양을 비유한 것으로 일종의 공식어구이다. 서귀포시 토평동의 송명하 가창자는 “자단애기 일어나듯 오골오골 잘일어난다”라고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떼가 두터우면 봉분에 붙이기 어렵다고 하여 알팍하게 일러달라고 상두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그만허민 테역은 거의뎡뎡허니
생토방으로 들어덜삼서
스토랑 건어덜가명
오닐영혼 하직허는 마당에
생토라도 보드랍게 쓰꾸왕
공이라도 갠아들 봅시다(제주:44, 상천리 박정환)

봉분에 입힐 떼를 확보하는 작업이 끝나면 봉분에 쌓을 흙을 파서 나르는 작업이 이어진다. 위 사설은 이 작업의 흐름을 노래하고 있다. 생토방으로 들어서라는 것은 한번도 파내지 않은 흙이 쌓인 곳, 진토곳을 파낼 곳으로 들어서라는 말이며, 스토란 곧 죽은흙으로 땅심이 깊지 않은 표층의 흙을 일컫는다. 생토는 살아있는 흙, 곧 땅속 깊이 숨 쉬고 있는 흙이며, 이 흙을 파내서 봉토로 써서 망자로부터 받은 공덕을 갠해보자며 작업을 독려하고 있다.

붉으룡헌 황토가 나도록

얼룬얼룬 스꾸와덜줍서 허어어

하관시간은 건당허여 오람수다(제주:44, 상천리 박정환)

위 사설은 가능하면 붉은 황토가 나도록 부지런히 진토를 파는 작업을 하관시간 전에 끝낼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황토를 스꾸는 일은 검은흙 사이에서 붉고 부드러운 흙을 골라내는 것으로 봉분에 쌓을 흙을 정성드려 파낸다는 인식의 일면을 알 수 있다.

○후손 발복 기원형

요디산씨 삼년만의 아들나면 효잘나라

딸은나면 열널나라 소는나면 황술나라

개는나면 사농캐여 닭은나면 황켈나라

말은나면 천리마여 돛은나면 지름돛이라(제주:34, 성읍리 송순원)

명당에 뗏자리를 했으니 후손이 발복할 것이라는 사설은 대개 <달구소리>에 자주 등장하는 고정적 사설 유형이다. 그런데 표선면 성읍리 송순원 가창자는 <진토굿소리>에 이 사설을 차용하여 노래했다. 이런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특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성읍리 지경에서는 정시가 정해진 방향에서 장례 당일날 진토를 파내어 봉토에 쓴다고 할 정도로 신중하게 진토 파는 작업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진토굿소리>의 사설은 가창자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부르거나 다른 요종에서 차용해온 사설들이 부분적으로 불리고 있다. 예로 “ㅎ다말면 놈이나 웃나”라든지 “나소리랑 흐거들랑 산넘어가라”, “멋디사람 좋고 보던디스람 보기 좋게”와 같은 보통 <맷돌가는소리>나 <발매는소리>에서 주로 불리는 사설의 일부가 조각난 채 차용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진토굿소리>의 편안하고 여유 있는 노동이 아니라 가래질이나 삽질처럼 격한 노동을 하면서 부른다는 연행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요인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진토굿소리>는 가락은 대체로 유

장하지만 사설이 정제되지 못하고 길어도 짧은 편이다.

3) <달구소리>의 사설 유형

<달구소리>는 한 사람이 “어허 달구야”라는 선소리를 부르면 달구질에 참가한 훗소리꾼들이 “어허 달구야”라는 후렴을 받으면서 노래가 지속된다. 특히 시작 부분에 “어허 달구야”를 두 번까지는 선채로 부르고, 세 번째 부를 때는 “삼식번째는 찍는달구야”라고 하면서 달곳대로 봉분의 흙을 찍으면서 본격적으로 노래와 달구질이 시작된다.

<달구소리>에 주로 가창되는 사설 유형을 찾아보면 <행상소리>만큼 다양하지는 않지만 <달구소리>는 답산가류의 산천풀이와 명당풀이가 사설의 주된 유형을 이루며, 이것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답산가류의 대표적인 사설은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수지조종은 황하수라”에서 시작해서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등의 산천경계를 소개해 나간다¹⁰⁾. 답산가류의 산천풀이는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유명한 산천경계에 대한 학식이 요청되기 때문에 아무나 부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제주도의 장례의식요에서는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를 비교할 때 산천풀이보다는 명당풀이가 주로 불려지고 있다.

○천년만년 살을집 형

천년만년 살을집을 / 석곽ㄷ찌나 다져나보세

상주덜은 즈근즈근이 / 불르고 불르고 또불르고

나뽀들맹이는 다주서가명 / 산천도좋아 좋았구니(제주: 11-12, 종달리 김수길)

“천년만년 살을집”은 곧 망자의 집인 무덤인 것이다. 무너지지 않게 석

10)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수지조종은 황해수라/ 경상도라 태백산은 낙동강이 둘러있고 전라도라 지리산은 서해강벽이 둘러있고 / 충청도라 속리산은 공주금강이 둘러있고 경기도라 삼각산은 한강이 둘러있고 / 황해도라 구월산은 임진강이 둘러있고 평안도라 모란봉은 능라도라 둘러있고 / 강원도라 금강산은 도계유수가 둘러있고. 이 노래는 충북 괴산 지방에서 채록된 <달구소리>로 지방마다 주요한 산과 강이 풀이되고 있다. - 임석재채록, 『한국구연민요자료집』, p.60.

꼭처럼 다지자는 다짐을 노래하고 있다. 이게 달구질을 행하는 주된 목적이다. 그래서 상주들은 밟고 또 밟고, 굵은 돌멩이를 주워내는 일을 하고 있다. 조천읍 선흘리 김형조 가창자가 부른 <달구소리>의 처음 부분에는 간단히 “석곽으로 다려주소”와 같이 변이되기도 한다.

○명당풀이형

한라영주 삼신산이 / 천하제일 명산이로다
상주님네 들어나보소 / 천하명당이 여기로다
인자묘방 할자리로다 / 현무주작이 아름다우니
집안화목 할자리로다 / 좌청룡 우백호는
부귀영화 역력하다 / 명당수국이 완만하여
자손번창 할자리로다 / 사방팔방을 돌아보니
감묘봉이 우뚝솟으니 / 정승판사 날자리로다
명우봉이 높고보니 / 천하명당 날자리로다
병신봉이 곱고고와 / 옥단한림 날자리로다
임계봉이 높고보니 / 여장여걸 날자리로다
천추만년 살을집이여 / 석곽같이 다려나보세 (제주:28, 월림리 김성담)

명당풀이형 사설은 한문에 대한 나름의 지식을 가진 시골의 향장들에 의해 주로 전승되고 있다. 산의 조종인 곤륜산에서 물의 조종인 황하수를 통해 우리나라로 전개되는 산천풀이 사설보다는 곧바로 제주도의 한라산이 명산임을 내세우면서 부귀영화, 집안화목, 자손번성할 자리임을 내세우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봉우리들과 관련하여 정승판서, 옥단한림 등 전통사회에서 추구하던 주요 직책이 제시하고 있다. 이 유형의 사설에 반드시 등장하는 어구는 “좌청룡 우백호”이다. 애월읍 하귀리의 고운일 가창자는 “청룡백호 버렸으니 부귀영화 지지로다”로 변이시켜 부르고 있으며, 서귀포시 토평동 송명하 가창자는 “좌청룡우백호 우거지니 아덜은나면 효자낳고 뚫은나면 열녀난다/ 우백호가 무성하니 외손이 잘날소나 좌청룡이 우거지니 아덜은나면 대장군된다”와 같이 변이시켜 노래하고 있다.

○우럭삼춘 형

우럭삼춘 들어도봄서 / 불락조캐 ㄹ르리듣저
간밤에 꿈을보니 / 쇄공쟁이 걸려되고
대구덕에 누워되고 / 돛배우혜 앉아되고
목탄불도 초와되고 / 뒷성우혜 올라앉아
절삼베도 받아되고 / 술석잔도 받아되니
니겹이랑 물지도맙서 (제주:36, 성읍리 송순원)

<달구소리>에서 가장 큰 특징은 <우럭삼춘>¹¹⁾으로 널리 알려진 사설이 삽입 가창되었다는 것이다. 이 노래는 불락이란 바닷고기가 우럭에게 밤에 꿈을 꾸 이야기를 하는 꿈 해몽이 주된 내용인데, 그 내용은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장례의식에서 사람의 죽음을 예고하는 꿈 해몽의 사설이 불린 것은 특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명사십리 해당화형

명사십리 해당화야 / 꽃진다고있진다 설워마라
너는명년 춘삼월되면 / 다시피어서 오건마는
우리인생은 한번가면 / 다시오기는 만무로다 (제주:47, 삼달2리 강성태)

이 사설 유형은 <달구소리>만이 아니라 제주도 민요, 더 나아가 본토의 민요에 흔히 불리는 인간생명의 유한성과 자연의 영원성을 대비시켜 인생무상을 함의하고 있다. 그러기에 망자의 장례를 치르는 달구소리에서 불린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4. 결어

이상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1) 『한국민요대전』, 79-80쪽. <우럭삼춘>이란 제목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첫째, 제주도에는 세시의식요로 전승되는 노래로 마뜩한 것이 없고 장례 의식요는 많이 전승되고 있다. 정월보름 마을제와 함께 행하던 걸궁에서 불리던 <걸궁노래>가 한 편 조사되었으나, 그 이후의 자료집에 없는 것으로 보아 전승이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세시의식요에 대한 세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제주도의 장례의식요는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행상소리>, 꽃상여를 만들고 장례식 전날 빈 상여를 메고 놀리면서 부르는 <꽃염불소리>, 봉분에 쌓을 흙을 파면서 부르는 <진토긋소리>, 봉분의 흙을 다지면서 부르는 <달구소리>(평토소리)가 전승되고 있다.

셋째, 현재 장례의식과 장례의식요가 전승되는 지역으로는 구좌읍 종달리, 우도면 하우목동, 표선면 성읍리, 제주시 이호동, 회천동 등 일부지역이다. 대부분 장의차를 이용하면서 장례의식요의 전승이 급격히 단절되고 있다.

넷째, <행상소리>는 제주도의 거의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불려지고 있으나, 성읍리 지역은 주로 마을 안에서는 <늦은염불소리>로 <행상소리>를 대신하고, 마을 밖을 나서면서는 <잡은염불소리>를 행상소리로 부른다. 표선읍 삼달리와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사설을 불려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구호음만으로 진행한다. 제주시와 북제주군 일부 지역에서 꽃상여를 놀리는 <꽃염불소리>가 전승되고 있다.

다섯째, 사설 유형을 살펴보면 <꽃염불소리>와 <행상소리>는 북망산천형, 저승길형, 회심곡형, 하직인사형 등이 행상이라는 기능의 실현과 상여 운상과정에 일어나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진토긋소리>는 가락으로 보면 '술기소리'형과 '더럽소리'형이 주로 불려지며, 일부 지역에서 '홍애기' 형이 불려지고 있다. 사설은 작업독려형이 주를 이루며 가끔 <달구소리>에서 불려지는 후손발복 기원형의 사설이 불려지기도 한다. <달구소리>는 대부분 지역에서 <달구소리>로 요명을 부르지만, 서귀포시 토평동과 예래동, 남제주군 안덕면 상천리, 표선면 삼달리, 북제주군의 한림읍 월림리 등 제주도 서남부지역에서는 <평토소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히 서귀포시 토평동의

경우는 후렴마저도 ‘어허어 팽토’라고 한다. 사실 유형은 천년만년 살을집형, 명풀이형이 주로 불려지며, 자손들의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의 장례의식요는 장례의식의 간편화에 따라 급격히 전승이 단절되고 있는 가운데, 향토민요에 대해 관심을 가진 몇몇 촌로에 의해 겨우 전승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앞으로 장례의식요의 체계적인 연구와 자료 수집 보완, 본토 장례의식요와의 비교연구를 차기 과제로 남겨둔다.

- 핵심어: 장례의식요, 행상소리, 꽃염불소리, 진토굿소리, 달구소리, 사실유형

<참고문헌>

- 강등학, 『민요』, 『한국구비문학개론』, 민속원, 1995.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1992.
 박경수, 『한국민요의 유형과 성격』, 국학자료원, 1998.
 임석재 채록, 『한국구연민요자료집』, 민속원, 2004.
 제주도, 『제주도장례의식요』, 200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9-1,9-2,9-3), 1980, 1982, 1983.

<Abstract>

Aspects of the Transmission of Songs in Rituals in Jeju-do
and Types of Their Words

Byun Sung-koo

Songs used in rituals are folksongs which are sung to make wishes or proceed in relation to various rituals in the folklore. They are classified into '*Songs in the Seasonal Events*' and '*Songs at the Funerals*'. In Jeju-do with a strong shamanism culture, there is not much '*Songs in the Seasonal Events*' transmitted. However, lots of '*Songs at the Funerals*'- '*Haengsang Sori*', '*Kkoryeombul Sori*', '*Jintogut Sori*' '*Dalgu Sori*', etc - have been transmitted.

Types of songs' words are '*Songs Describing Human Being's Mortality*', '*Songs Describing the Road to the Other World*', '*Songs Reviewing the Dead Man's Career*', '*Songs Saying Goodbye*', etc, which are sung, especially in the songs, '*Haengsang Sori*' and '*Kkoryeombul Sori*'. In those words appear perspectives and emotions of death. In case of the song, '*Jintogut Sori*', based on the tunes, is classified into '*Solki Sori*', '*Deoreom Sori*', and '*Hongaegi Sori*'. Its major type of words is '*Encouraging Work*', and '*Making Wishes for the Descendants*' is also found at times. The types of words of '*Dalgu Sori*' are primarily '*Songs Praising the Sweet Grave*', '*Songs Describing the Heavenly Grave*,' which imply that their descendants will have a wealthy and healthy life in the future.

- Key Words: *Songs at the Funerals*, *Haengsang Sori*, *Kkoryeombul Sori*, *Jintogut Sori*, *Dalgu Sori*, Types of songs' words